

안테나



김동진 편집장



정부, 생산자 단체 계란 산지가격 고시 폐지

축산물품질평가원 조사·발표가격으로 점진적 대체

정부는 지난 7월 31일 보도 자료를 통해 생산자가 발표하고 있는 계란 산지가격 고시를 폐지하고 표준거래계약 방식

등을 도입, 가격 결정구조를 투명화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계란 산지가격 조사체계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2023년 9~12월)하는 한편,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생산자단체를 포함한 관련단체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계란가격 발표는 60여 년전 본회(양계협회) 전신인 한국가금협회에서 1969년 발표를 시작한 이후 본회 채란위원회에서 난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인들과의 협의 등을 통해 계란가격을 발표해왔다.

생산자 가격 발표는 계란 상인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채란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생겨났으나 운영과정에서 2중시세가 형성되는가 하면 후장기 할인(D/C) 등으로 인해 상인들과의 마찰이 심화되고 가격결정에 대한 신뢰도 낮아지기 시작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의 소지가 있어 수차례 조사를 받기도 하였지만 이렇다할 대안이 없어 기존의 가격발표를 고집해 왔으며, 최근 들어서는 일부 생산자들이 본회와 분리하여 새로운 조직(산란계협회)을 구성하면서 본회가 해오던 기존의 방식 그대로 난가를 조사·발표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생산자단체들이 가격을 발표하는 것은 실제 거래가격이 아니고 희망가격(일종의 협상 기준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이며, 전국에 10여명으로 구성된 난가위원들을 통해 논의하여 발표하는 현재의 방식은 대표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조사·발표하는 현재의 시스템에서 조사대상을 충분히 늘리고 표준거래계약서를 만들어 후장기 할인(D/C) 대금 결제 방식을 없애는데 주안점을 두어 생산자들이 발표하는 현재의 방식을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조사·발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생산자단체의 가격고시를 폐지키로 결정한 만큼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조사체계가 완벽하

게 이루어지는 대로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본회는 이에 대비해 생산자 및 관련업체들에게 제공하는 시세정보를 현실에 맞게 제공하기 위해 보다 업그레이드된 정보를 준비중에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그동안의 병폐였던 후장기의 관행이 사라지고 출하시 제가격을 받고 거래되는 투명한 거래가격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동물단계 인수공통질병 대응책 마련된다

산업적인 피해 없도록 준비되어야

최근 미국의 젓소농장에서 고병원성AI(H5N1)가 발생하고 사람으로의 전파 사례 등이 보고되면서 동물단계에서도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축에서 인수공통전염병과 관련된 질병을 보면 고병원성AI, 소 큐열(Q fever), 소 브루셀라병, SFTS(중증열성혈소판증후군)이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으며, 이들 질병은 아직 국내에서는 인체감염 사례가 없지만 외국에서는 동물에서 사람으로의 감염사례가 나타나고 있고, 특히 고병원성AI는 팬데믹 우려성까지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이 준비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비해 동물단계에서 주요 인수공통질병 조기예찰 및 신속대응 방안 필요성을 강조하고 「동물단계 인수공통질병 대응 계획」마련을 위한 TF를 운영키로 하였다.

TF는 정부(중앙 및 지자체), 학계, 생산자단체 등으로 이루어지며 이들은 포유류에서 HPAI(H5N1) 발생 시 긴급대응 매뉴얼(SOP) 마련, 동물단계 인수공통질병(4종) 예찰·모니터링 프로그램 고도화, 동물에서 사람으로 인수공통질병 전파(spill-over) 차단을 위한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선 등을 구체화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미국과 유럽에서의 고병원성AI 발생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최근 미국 콜로라도주 소재 산란계 농장(180만수)에서 HPAI(H5N1형) 발생에 따라 살처분 작업에 투입되었던 작업자 중 6명이 HPAI에 감염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오면서 고병원성AI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부는 금년 말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키로 하였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준비는 필요하겠지만 산업적인 피해가 오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금까지 고병원성 AI, 코로나 등으로 과장된 보도가 국민들을 공포에 몰아넣기도 했지만 기우에 불과했다. 따라서 마치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또한 매뉴얼 작성시 농가들에게 불필요한 규제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양계**